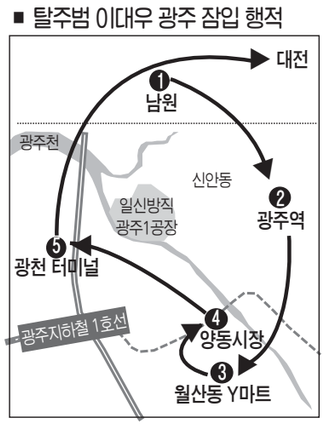
# 이대우 검거 뒤 더 부산한 광주경찰 … 왜?

## 잠입→현금 탈취→수갑 절단→고속버스 탑승 까맣게 몰랐다

## 부실수사 비판 거세자 CCTV 뒤지고·파손된 수갑찾기 나서

■ 탈주범 이대우 광주 잠입 행적




1. 5월 20일 오후 2시 50분 전주지검 남원지청 탈주
2.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광주역 도착(택시 이용)
3. 5월 20일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남구 월산동 Y마트서 현금 30만원 훔쳐
4. 5월 20일 오후 7~8시 양동시장서 절단기 구입한 뒤 야산서 수갑 절단
5. 5월 20일 밤 9~10시 광천터미널서 고속버스이용 대전으로 빠져나감

탈주범 이대우(48) 검거에 총력을 기울여온 광주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대우가 도주 당일 광주에 잠입, 양동 시장에서 구입한 절단기로 수갑을 부수고 고속버스로 광주를 빠져나갔지만 검거 전까지도 이동 경로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검거 뒤 수갑을 찾기 위해 양동 시장 일대를 뒤지는가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CCTV를 뒤지는 등 확인작업에 나서 전형적 뒷북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17일 광주경찰청의 지시로 2개 수사팀과 타격대원 등 20여명을 동원, 양동시장 일대와 옛 서부경찰서 인근 야산을 돌며 이대우가 버린 수갑 찾기에 나섰다. 이대우가 지난달 20일 오후 6시30분께 월산동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뒤 양동시장에서 절단기를 구입, 수갑을 부수고 인근 야산에 버렸다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초동 수사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앞서 경찰은 이대우가 광주 월산동 마트에서 절도를 저지른 뒤 4일 뒤 Y마트 주인의 제보를 받고서야 잠입 사실을 알아차리는가 하면, 광주를 벗어난 뒤에 하루 평균 1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터미널·역·PC게임방·폐가 및 빈집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검문검색에 나섰다. 처음부터 끝까지 '뒷북'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

허술한 수사망에 대한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광주 경찰은 이대우 검거 후에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브리핑을 통해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대전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서부경찰이 이대우 광주 잠입 이후 터미널에 설치된 CCTV 48개를 뒤졌음에도 버스 탑승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찰은 이대우 광주 잠입 사실을 파악한 뒤부터 검거 때까지 광주역·터미널 등 주변에 설치된 128개의 CCTV 화면을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민 사이에서는 그동안 경찰의 CCTV 분석과 검문 검색 등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생 치안 소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원참 〈8840〉 김종두

### 탈주범 이대우 신고 포상금 오인 신고자에게도 준다

탈주범 이대우를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오인해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게 됐다. 범인 검거와 관련해 오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은 17일 신고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목격자 김모(51)씨에게 포상금 800만원, 오인 신고자 박모(여·28)씨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그 많은 상품권 누구 주려고?

### 서울 유명 제약회사 직원 광주서 2600만원 도난당해 절도범은 잡았지만 상품권 출처·용도엔 함구

서울의 한 유명 제약회사에 다니는 30대 남성이 광주 출장 중 2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든 갈색 가방을 도난당했다가 5일 만에 되찾았다.

절도사건은 범인이 검거되면서 일단락됐지만, 경찰의 시선은 절도범이 아닌 피해 남성이 되찾은 상품권으로 쏠리고 있다.

30대 제약회사 직원이 수천 만원 어치의 상품권이 담긴 갈색 가방(가로 40㎝·세로 25㎝)을 들고 광주를 찾은 배경과 상품권의 출처와 '용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A제약회사 직원 이모(39)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 객실에 투숙한 뒤 2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든 가방을 놔둔 채 외출했다.

모텔 주인은 이씨가 퇴실 한 것으로 착각, 다른 손님 임모(43)씨에게 이씨의 객실을 내줬고 임씨는 객실에서 가방을 발견, 그대로 훔쳐 달아났다. 외출 뒤 돌아온 이씨는 도난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16일 이 모텔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한 경찰은 임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 이씨 조사 과정에서 상품권이 누구 것인지와 용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30대 제약회사 직원이 고가의 상품권을 무더기로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씨는 경찰에서 "상품권은 내가 직접 구매했고, 용처까지 말해야 되느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절도 사건 피해자이지만 상품권 출처 등에 대해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무더위에도… 대학생들은 열공 중** 17일 대학가가 방학에 들어갔지만 취업 열기는 뜨겁기만 하다. 전남대 중앙도서관에서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차지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검사·판사의 어이없는 실수

## 이홍하에 뇌물받은 공무원 억대 벌금 안 물렸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된 교육부 직원이 검찰과 1심 법원의 착오로 거액의 벌금형을 면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돼 뇌물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을 함께 부과하라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두 기관 모두 이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의 선고는 2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양씨는 2년간 범죄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벌금 선고를 유예한 배경에는 검찰과 1심 재판부의 착오가 있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담당판사가 양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면서 뇌물죄에 함께 부과하도록 한 벌금형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이를 구형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간과했다.

이 같은 두 기관의 '실수'로 양씨는 자신이 받은 뇌물 220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최소 44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유예받게 됐다.

게다가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대로 1심 형량이 나오자 항소하지 않았고, 양씨가 단독으로 항소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혜택'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원칙에 의거, 1심 선고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고 대신 벌금 5000만원을 추가했으나, 벌금 5000만원이 감형된 징역 6월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를 감안해 선고했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빚 갚으려면 해외취업하라 채무자 두번 울린 사채업자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채무자를 해외 금융사기 콜센터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피유인자 국외 이송 등)로 권모(38)씨를 구속하고 홍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채업자인 권씨 등은 지난해 11월 "해외 취업으로 빚을 갚도록 해주겠다"며 여성 채무자 3명을 필리핀 마닐라로 유인, 콜센터에서 금융사기에 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대출 사기 피해자는 6명, 피해금액은 3000만원 가량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불법 하도급 1억9000만원 챙겨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통신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로 구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011년 11월 지방 국립대 교육센터 통신공사를 낙찰받은 뒤 최모(50)씨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업체에 통째로 하도급을 주고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酒파라치' 신고에 운전자 면허취소

쌍나팔

○…여수·광양·순천·목포 등 전남 5개 시에서 지난 15일부터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주(酒) 파라치' 신고에 의해 음주 운전자가 적발.

○…1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고보상금제 시행 이틀 만인 16일 A(42)씨가 여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면허 취소.

○…전남경찰은 또 이틀 동안 접수된 9건의 음주 운전 의심 신고 중 면허 취소(1명), 훈방(2명) 외에 나머지 6건은 의심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